

‘남도미향’ 브랜드 유통회사 생긴다

유자차와 굴비, 갯 김치 등 전남지역 최고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국내 판로개척은 물론 수출까지 추진하는 유통전문회사가 설립된다.

전남도는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동 브랜드인 ‘남도미향’의 상표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판로를 체계화하기 위해 ‘남도미향’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 134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통전문회사를 전국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설립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도미향’ 브랜드는 전남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전남도가 부여하는 상표로, 굴비와 유자차·녹차, 김치·양념류, 김·미역류, 건강보조식품(신선초·어성초 액기스 등)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134개의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57개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전남도, 광역단체론 전국 첫 법인설립 9월부터 운영

굴비·녹차·미역 등 134개 가공식품 유통·수출 전담

전남도는 이들 업체들의 제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대한 납품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출 관로 또한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 국내 유통과 수출만을 전담하는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국내의 영업체널을 구축해 상품 및 고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도미향 브랜드 업체들의 총 매출은 2007년 말 현재 1천228억으로 매년 12% 정도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유통전문회사가 설립되면 최소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추진위원회를 7월 초까지 구성하고 최종 설립안을 확정, 빠르면 8월 중순에 법인설립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 회원사가 주주가 되는 순수 민간회사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전문회사 출자는 남도미향 회원사가 기본예수를 균등하게 출자하고 여기에 사업 규모에 따른 균등배분방식을 취하게 되며, 유통회사는 중간판매상 없이 직접 회원사의 제품을 대형유통점에 입점시키거나 수출에 나서게 된다.

양복관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전남의 농수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의 소득 및 이윤증대를 위해 전문 유통회사 설립이 절실하다”며 “농수산물 수출선 다양화와 수출량 확보를 위해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 설

기아차 ‘18년 연속 파업’ 고리 끊어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노조가 26일 ‘2008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쟁의 행위를 결정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난 91년 이후 ‘18년 연속파업’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세우게 된다. 유가급등과 물가상승 등으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아차파업이 파업을 들어간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외환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보고 있다. 올 경제성장률은 4%대 이하로 주저앉고, 경상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다 일자리 창출은 20만 개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마

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파업은 우리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 사정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자동차 시장의 경쟁 속에 경영이 악화되는 등 위기 상황이다. 더욱이 기아차는 지난해 14일간의 파업을 하면서 3천700여명의 생산 손실을 입지 않았다.

지금은 회사나 노조 측 모두 한발씩 양보해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무리한 파업은 회사의 해외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조의 고용상황마저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아차 노조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회사와 노조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현명한 합의의를 도출해 ‘18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기필코 끊어야 할 것이다.

‘지방’ 반발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할 건가

광주시와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영호남 공동합의문을 통해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촉구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정부 추진했던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을 새로 내놓았지만 출범 4개월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시·도지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자 국민적 합의 사항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위 기의식은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는 참

정부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몰려 있지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불만은 폭발적일 것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겠는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강력한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위 기의식은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는 참

■北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북한이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55분께 한국과 미국, 중국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냉각탑은 광하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연기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초 후 연기가 사라진 뒤엔 냉각탑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닥엔 잔해만이 남았다. CNN방송은 폭파 2시간 후 현지 상황을 세계 각국에 중계했다.

폭파가 성공한 후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북한측 관계자는 밝은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

성 김 과장은 폭파 직후 현장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냉각탑 폭파는 상

北 비핵화 첫 발...韓·美·中 “실질적 진전” 환영

6자회담 내주 재개될 듯...‘북핵 신고’ 정확성 등 검증 과제

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으로 6자회담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관계자 역시 “6자회담이 한발 더 진전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것과 관련,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핵 신고서 제출에 이어 냉각탑

폭파로 인해 6자회담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 평가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일정과 관련,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7월 초까지는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외교소식통도 “아직 의장국인 중국으로부터 회담 일정에 대한 연락은 없다”면서도 “내주 중반 이후에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가 아주 현명한 조치라며 높게 평가했다. 진린보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태 연구실 주임은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6자회담 2단계의 실질적인 진전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실질성에 비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비핵화 노력의 진전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생색내기용 미디어 이벤트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토론회가 27일 KBC광주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워킹기자 jw@kwangju.co.kr

코스피 1,700 붕괴

美 증시 급락 여파...3개월만에

고유가와 미국 증시급락 여파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2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3.21포인트 급락한 1,684.45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증가 기준으로 1,7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3월27일(1,676.24)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지수는 46.80포인트 내린 1,670.86으로 출발했으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뭇목을 즐겼다. 앞서 마감한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급등과 미 신용경색 불안의 여파로 3%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하락에 주된 요인이 됐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8.11포인트(1.35%) 내린 594.63으로 마감됐다. 코스닥지수가 증가 기준으로 6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5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유가 급등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 소식에 12.16포인트(2.02%) 내린 590.58로 출발한 뒤 기관의 매수 덕에 나뭇목을 민화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몽준-박희태 ‘막말’ 공방

鄭 “박, 대표되면 당 문 닫아야”朴 “너무 일찍 열매 따러 해”

한나라당 대표 경선 광주 토론회

한나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정몽준 의원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7일 아슬아슬한 ‘막말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KBC광주방송이 중계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토론회’에서다. 박 전 부의장은 상호토론회에서 자신의 질의 순서가 오자 “나무도 이식하면 2년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한다. 뿌리도 내리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 의원은 당에 들어오자마자 대표라는 큰 열매를 너무 일

찍 따려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당인데, 공천에서 탈락한 박 선배께서 당 대표가 되시면 한나라당은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박 전 부의장은 “너무 그렇게 막말 하나야 얼떨떨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공천 잘못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현재 북방이 가장 큰 과제이고 공천 후유증을 막는 게 가장 큰데 자꾸 공천에 얽매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홍행기자 redplane@

빛의만평

- 김중두

이거 되겠습니까?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황해권 시·도지사협, 정부에 건의

전남과 전북, 경기, 인천, 충남 등 황해권 5개 시·도지사들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정부에 촉구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황해권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갯벌타워에서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황해권 공동 현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황해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호남고속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황해권을 아우르는 SOC가 조속히 확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황해권과 중국

동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결하는 한·중 지역협력 협의체 구성 ▲황해권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 등 5개 지역의 각종 행사 성공을 위한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상호협력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조류인플루엔자(AI)의 항구적인 방제대책 및 황해권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는 황해권 5개 광역단체의 정책 공조와 현안 협의를 위해 지난 2003년 발족돼 첫 회의를 가진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